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눔은 사랑입니다

WINTER

2023 Vol. 87

Korea Marrow Donor Program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



회장 인사말	03
전문가 칼럼	
조혈모세포 기증, 단계별 절차	04
이식조정사업부 나정화 부장	
사랑을 나눕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08
이라영 기증자님	
정말 의미있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10
최진복 기증자님	
항상 고맙습니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에 동참해 주신 천사님께	12
수혜자 문현준 (가명) 님의 어머니님	
저에게 주신 크나큰 마음	14
수혜자 김진열 (가명)	
현장 STORY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제 일에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16
이식조정사업부 김자연 코디네이터	
함께라서 '라온'답게 즐거울 따름이다	18
KMDP 서포터즈 부단장 백재은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	20
이식조정사업부 이미애 과장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22
좋은 소식 전합니다	
KMDP NEWS	24
KMDP 창립 30주년 기념책자 제작 착수	26
<조혈모 워킹 온 라이프>	27
KMDP 의대생 홍보위원단 1기 위촉	28
<나의 3일이 당신을 일상으로>	30
대한적십자사·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32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통계	34
역대 기증자 명단	36
조혈모세포 기증자 모임 '징검다리'	40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분들	42
혈액암 환우 응원 프로젝트	44
개인정보 변경 및 헌혈증 기부 안내	48
조혈모세포 기증 Q&A	50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사람들

2023 WINTER Vol. 87

2023년 10월 20일 발행

발행인 신희영
 편집책임 김건중
 편집 지수희
 발행처 KMDP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02길17, 2층
 TEL 02-737-5533
 FAX 02-737-5336, 7
 E-mail KMDP@kmdp.or.kr
 홈페이지 https://kmdp.or.kr



안녕하십니까. KMDP 회장 신희영입니다.

KMDP가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조혈모세포이식이 원
 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6천여 명이 넘는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5
 만여 명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으로 환자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KMDP로 많은 관심과 지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
 자 여러분과 의료진, 후원으로 도움 주시는 후원사와 후원자님께 다시금 감사
 인사 드립니다.

KMDP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 해왔습니다. 올해에도 헌
 혈자의 물적나눔으로 구성된 대한적십자사 및 한마음혈액원의 헌혈기부권 지
 원사업에 선정되어 치료비와 투병물품을 제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
 키고자 하였습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로 생명나눔을 실천
 하신 우리의 영웅, 조혈모세포 기증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증희망자의 기증
 의사 유지를 독려하고, 후원자에게는 나눔의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올
 해는 11월 4일,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및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 걷기 <조혈모 워킹 온 라이프>를 진행합니다. 여
 러분이 기부해주신 따뜻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조혈모 워킹 온 라이프>의
 목표 걸음 수 2억 1천 보를 달성하면 이를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조혈모세포 이
 식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길고 힘들었던 코로나19를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든 상
 황 속에서도 보내주신 응원을 기억합니다. KMDP 임직원 일동은 이에 힘입어
 더 크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새 생명을 나누는 기쁨에 동참해주신 기증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
 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에 웃음과 건강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10.
 KMDP 회장

신희영

조혈모세포 기증, 단계별 절차



이식조정사업부 나정화 부장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중에는 기증등록 후, 등록 사실을 잊은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등록 당시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유전자형(HLA,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할 확률이 2만분의 1로 아주 낮다고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실제로 일치 환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당황하며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기증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증희망자분도 많이 계십니다. 추후 자신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혈액암 환자가 나타났을 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 까지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

1. 유전자형 일치 환자 발견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이식의료기관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된 기증희망자를 검색하여 유전자형이 일치한 기증희망자가 있을 경우, KMDP로 환자와 유전자형이 일치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상담을 요청합니다.

2. 기증의사 재확인

KMDP에서는 기증희망등록 시 작성하는 신청서에 의거하여 기증희망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기증희망등록 후에 변화한 건강상태, 생활환경, 본인 및 가족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증여부를 재확인합니다.

3. 유전자 확인검사

최종 기증동의 후, 환자와 유전자형(HLA, 조직적합성항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증희망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추가적인 확인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환자와 적합할 경우에 다음 기증절차를 진행합니다.

※ 확인검사 시에는 기증희망등록 당시보다 자세한 고해상도의 조직적합성 검사(HLA High Resolution Typing)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환자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건강검진

기증자 및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식일정을 협의·조정합니다. 조혈모세포 채취 예정일로부터 약 4주 전에 기증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3차 대학병원에서 건강상태 및 질병감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검진 결과 부적합 판단 시, 기증이 불가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원활한 기증을 위해 기름진 음식과 술, 기타 약물은 가급적 드시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주요내용: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심전도 검사 등

5. 입원 및 조혈모세포 채취

기증자는 조혈모세포 채취 하루 전에 채취의료기관에 입원합니다.

골수기증 시

입원 다음 날 아침, 전신마취 후에 엉덩이뼈 속에 있는 골수액(조혈모세포)을 채취용 주사기로 채취하는 동시에 미리 채혈해 둔 자가혈액을 수혈합니다. 현재는 거의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99% 이상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초혈조혈모세포기증 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의 성장을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조혈모세포성장촉진제(G-CSF) 주사제를 채취 4일 전(입원 3일 전)부터 매일 한 차례씩 피하주사합니다. 입원 다음 날 아침, 성분헌혈을 하는 것처럼 한쪽 팔의 혈관을 통해 나온 혈액이 혈액성분채집기계를 통과하면 조혈모세포만 분리·채취되어 모이고, 나머지 성분은 반대쪽 혈관을 통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채취하는 동안 채취 부위에 빠른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약 4~6시간동안 기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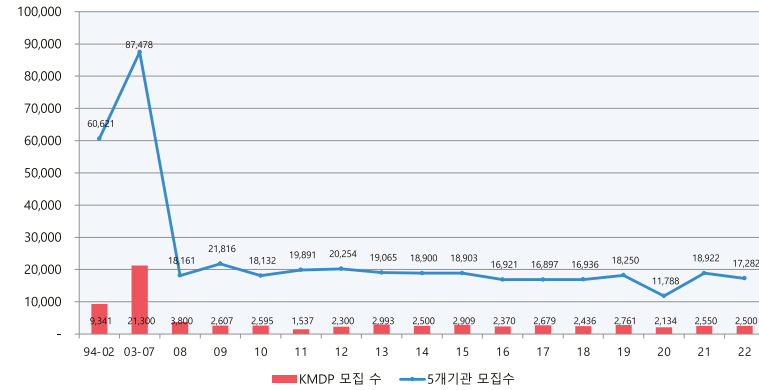
2가지 기증방법 모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날 퇴원하기 때문에 입원기간은 2박 3일이지만, 회복을 위해 퇴원 후 약 2~3일간의 휴식을 권장합니다.

6. 추후관리

KMDP에서는 기증자 동호회 활동 지원, 기증 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불편감 관리, 기증절차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후관리를 진행합니다. 또한 기증자는 기증에 필요한 일체비용(의료비, 교통비 등)의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는 2022년 말 기준, 420,21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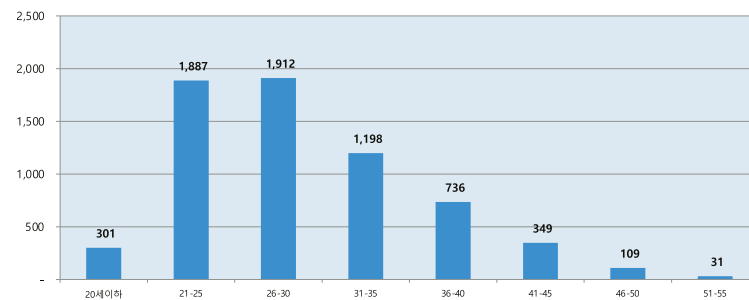
표 1.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현황



*단위 : 명
*기준 : 1994~2022
*총누적 : 420,217
(KMDP:69,312)
*KONOS 자료제공

그리고 실제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기증자 연령은 21~25세가 1,887명, 26~30세가 1,912명으로 전체 6,523명 중 8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의 기증희망등록이 중요하지만 특히 2030세대의 조혈모세포 기증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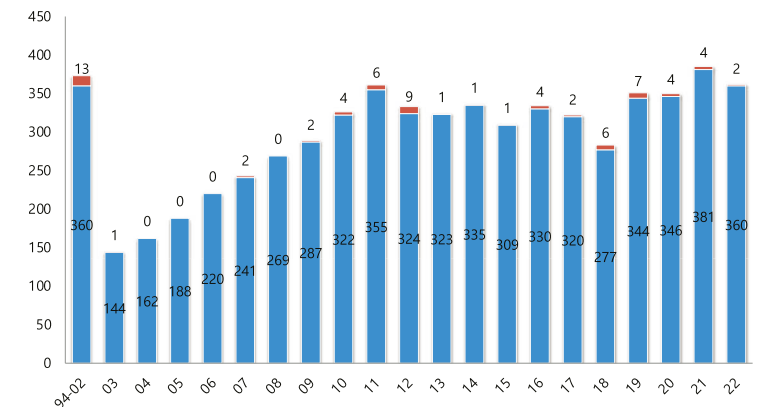
표 2. 조혈모세포 기증 시 연령



*단위:명
*1994~2022
*이식현황 : 6,523명

또한 국내에서 적합한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증자의 거부 의사 등으로 이식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증자가 더 이상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KMDP에서는 국외 기증자와의 이식조정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KMDP는 세계 각국의 이식조정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일본 JMDP와의 정식협약을 시작으로 2005년 9월에는 미국 NMDP, 2006년 12월에는 대만의 BTCSCC, 2007년 1월에는 중국 CMDP와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에는 세계조혈모세포기증자협회(WMDA : World Marrow Donor Association)에 가입해 세계 각국의 이식조정기관과 교류하며 현재까지 약 450명의 외국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받아 이식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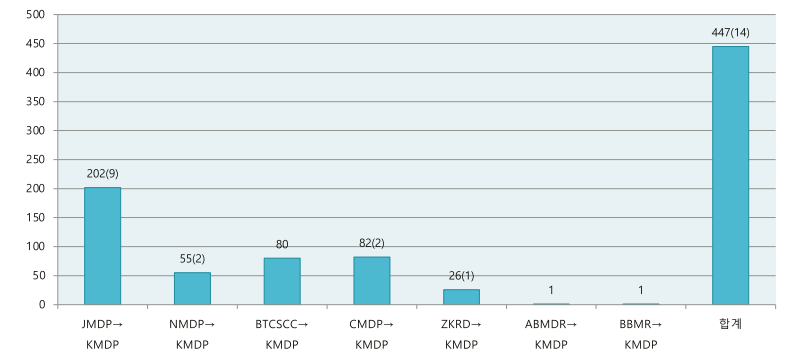
표 3. 조혈모세포 국내의 이식 현황



*단위:례
*1994~2022
*이식현황 : 6,266례

WMDA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의 조혈모세포은행과 137개의 제대혈은행이 가입되어 있고, 약 4천 만명의 기증자와 제대혈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표 4. 조혈모세포 국외 수증 현황



*단위 : 명
*()은 DLI

기증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기증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번거롭고 불편한 기증 절차를 감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한 기회였다고 말씀하시는 기증자님을 보면 존경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기증 연락을 받게 될 기증자님, 기증희망등록 당시의 숭고한 마음과 새 생명나눔의 의지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KMDP에서는 기증자님의 안전과 이식수혜자의 완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증자 인터뷰 1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이라영 기증자 2023년 기증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이라영입니다.

☀ 우리 바다의 안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해양경찰'을 업으로 삼은 만큼, 기증 연락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바다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로서 비록 직무와 관계는 없지만 저의 기증으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과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기증하고자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구체적 계기란 건 없었어요. 헌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혈모세포 기증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헌혈과는 다른 느낌으로 저만이 이 환자분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당연히 기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기증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때가 제일 인상 깊어요. 조혈모세포 기증 모든 과정 중에 제일 아팠던거라 그런 거 같아요. 무엇보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소에 내가 누워서 초록색 수술천으로 모든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게 무섭고 긴장도 되었어요. 간단한 시술을 위한 순간이었지만 아픈 환자분들께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자주 있으셨을지, 또 이것보다 더 아픈 치료를 받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 기증을 끝마치고, 환자분의 안부를 전해 들으셨을 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제 수혜자 분께서는 조혈모세포를 바로 이식 받지 않으시고 냉동보관 해놨다가 이식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막상 수혜자께서 이식을 받으셨을 땐 기증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제 생활로 돌아와서 조금 잊고 지냈는데 안부를 들으니

괜히 반갑고 또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 이번 '2023 하반기 부울경 지역 기증자 간담회'에 참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특히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친구분(고지원 님)도 동행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기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그 당사자가 누군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조혈모세포 기증의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게 잊혀 졌다는게 맞는 표현 같아요.

그러다가 간담회가 있는 걸 알고 다른 기증자들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만나 보면 좋을 거 같아 참석하게 되었어요. 친구는 실제로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은 친구니까 간담회에 참석해서 충분히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행했어요.

☀ 기증자와의 모임을 통해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 기증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기증자는 저 포함 2명뿐이었고, 오래 전에 기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조혈모세포 기증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될 일이었구나! 잘~~ 했다! 생각이 들었네요.



☀ (고지원 님께) 이라영 님께서 기증자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 들었을 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말 그대로 '기증자'모임인데 제가 가도 되는 자리인가 싶었어요. 라영이가 모임 연락받고 제 생각 났다고 해줘서 고마운 마음에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 (고지원 님께) 실제로 많은 기증자들을 보니 들었던 기분은 어땠나요?

모임에선 뵈는 분들 모두 기증하신 걸 알아서 그런걸까요. 인상이 다들 너무 좋으시고, 대화 하는데 너무 편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나 기증하신 다른 분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요즘은 기증하는게 엄청 힘들고 아픈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이것 저것 신경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아니까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 아직 기증을 망설이는 분들께 격려와 힘이 될 응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고 생각한 분이라면 조혈모세포 기증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증은 별거 아니지만 그 결과는 별개가 맞답니다!



기증자 인터뷰 2

정말 의미있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최진복 기증자 2022년 기증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울산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31세 (만 29세) 최진복입니다.

☀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을 업으로 삼은 만큼, 기증 연락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기증신청 후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연락을 받아 얼떨떨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들어서 바로 기증의사를 밝혔습니다.

☀ 기증하고자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딱히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좀 더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얼마없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기증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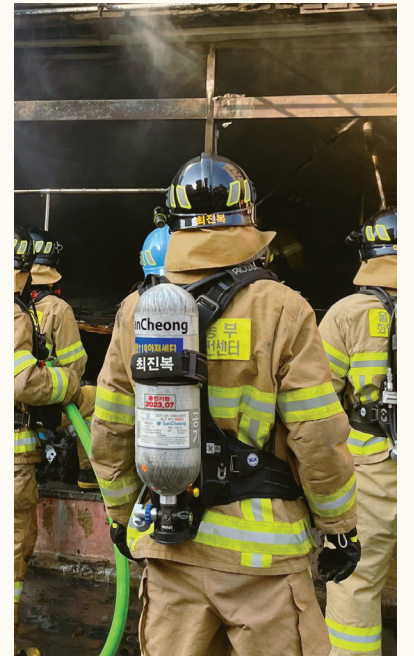
기증하느라 입원했던 병원의 병동 간호사분이 2022년의 울산 제1호 조혈모세포 기증자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증자를 만나 반가움에 여러 질문을 하며 대화를 나눴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 기증을 끝마치고, 환자분의 안부를 전해 들었을 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 하지만, 다행히 좋은 결과로 수술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정말 기뻐고,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자분께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 아직 기증을 망설이는 분들께 격려와 힘이 될 응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증을 망설이고, 걱정하는 마음이 어떠할 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기증 관련 정보나 기증자 인터뷰



뷰 자료를 찾아보면서 안심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증을 함으로써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증자의 인생도 더 의미있어지리라 믿고, 응원합니다.

☀ 이번 '2023 하반기 부울경 지역 기증자 간담회'에 참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기증자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기증하게 된 계기 그리고 기증자분들이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지 알고 싶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기증자와의 모임을 통해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에 처음 참석하게 되어서 어색한 순간도 많았지만, 좋으신 분들이 서로서로 오랜 시간동안 인연을 이어가는 모습이 신기하면서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 많은 홍보를 통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어느 때와 다르게 이식수혜자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간담회에서 수혜자를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 했습니다. 현재 건강상태나 기증까지의 진행절차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대화하면서 제가 다 뿌듯했고, 정말 특별했던 경험입니다.

☀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제 인생에서 정말 의미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남은 삶을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에 동참해 주신 천사님께

수혜자 **문현준(가명)** 님의 어머니



기증자님. 안녕하세요.

2012년 여름, 조혈모세포 이식이 확정 되었다고

보호자를 부르는 전화를 받고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특별한 인연이 되어

아들에게 값지고 고귀한 일로 생명의 씨앗을 나누어 주신 천사님.

벌써 10년이 지났고, 곧 새해 2023년을 맞이하네요.

이식 후 1주년에 우리 가족들이 기증자님께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연락을 드리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식 후 4년을 건강하게 회복되어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정기검진에서 재발이 확인되어 2차 이식 후 올해 5년이 지났습니다.

발병 당시 학생이었던 아들이 지금은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공모전에 참가해서 2년 연속 수상도 하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 독학으로 공부하며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하면서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10년 전 기증자님의 선택과 결정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언어로도 제 마음을 표현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도 글로 표현하여

제 마음과 정성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에 동참해 주신 천사님.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뿌듯함과 보람으로 새 힘을 얻고 늘 건강한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 2022년 겨울, 이식수혜자의 어머니께서 기증자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여 원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에 동참해주신
천사님께

저에게 주신 크나큰 마음

수혜자 김진열(가명)



생명의 은인이신 기증자님께.

안녕하세요.

기증자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서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식 동의를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며 있었는데

입원하던 날, 아이가 아빠한테 온 편지라며 건네 받았던 기증자님의 편지까지...

기증자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에 더 이상은 수혈만으로는 힘들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유전자형이 모두 일치하는 기증자가

기증에 동의해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희 가족들은 마치 이제 병마에서 이기기라도 한 듯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기쁨을 주신 누군지 모를 그 분이

‘어떻게 이 힘든 과정을 겪으시면서까지

이렇게 큰 선행을 베풀어 주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그저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의 일부를 타인을 위해 시간과 고통, 두려움을 감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감히 짐작해보면서,

저에게 주신 크나큰 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갚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기증자님의 도움으로 이식이 잘 되어 회복 중입니다.

경과도 매우 좋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이식편대숙주’ 반응이 있겠지만 기증자님의 응원으로 부디 잘 이겨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들은 모두

저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 덕분일 것입니다.

기증자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증자님도 언제나 늘, 항상 행운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2023년 여름, 이식수혜자께서 기증자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여 원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제 일에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이식조정사업부 김자연 코디네이터

안녕하세요, KMDP 이식조정사업부 이식조정2팀 코디네이터 김자연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요하는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서 기증 및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식조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며 우연히 조혈모세포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았고, 때마침 KMDP의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코디네이터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직업과 업무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누군가에게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코디네이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 2021년 9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이후,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기증자님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기증 절차에 항상 협조적으로 임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따뜻한 진심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이식 받을 환자에게 선물을 건네고 싶어서 휴일에 자녀들과 따로 시간을 내어 고민하셨고, 어린 자녀들이 앞장서서 도움을 받을 친구에게 선물과 편지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도 순수하고 따뜻한 그 마음이 와 닿아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곤합니다.

이처럼 환자 혹은 그 가족분들과 기증자님이 편지에 서로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아환자가 기증자분께 그림편지를 보내왔 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지쳐있는 와중에 천진난 만함과 순수함이 느껴지는 그림편지를 보며 굉장히 몽클한 마음이 들었고, “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에 무척 뿌듯했으며, 한편으로는 초 심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만분의 1이라는 희박한 확률 속에 기증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혈액암 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



라며 무척이나 안도하고 기증을 뿌듯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 또는 보호자 등의 완강한 반대 또는 잘못된 사실에서 비롯된 오해 등으로 기증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혹 기증을 가볍게 여기고 고민 없이 진행한다고 하셨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그럴 경우, 환자는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 정신적·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사숙고하여 기증에 동의해주셨더라도 기증을 위한 상세 상담 및 유전자 검사, 건강검진 등 기증이 진행될 때까지 바쁜 일상 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기증 과정을 감수하며,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소중한 생명과 희망을 나눠주시는 모든 기증자님이 존경스럽고, 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생명과 생명을 잇는 코디네이터로서 사명감을 갖고 고 통스러운 병마에 시달리며 간절하게 이식만을 기다

리는 환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증자님이 안심하고 조혈모세포 기증에 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제 일에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앞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을 가슴 속에 새기며 간호사의 꿈을 키워 왔고, 지금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사랑이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기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유념하며, 앞으로도 긴 시간동안 KMDP의 일원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소중한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새 생명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실 환자분들, 그리고 지금도 이식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함께라서 '라온'답게 즐거울 따름이다

KMDP 대학생 서포터즈 8기 라온
부단장 백재은



2022년 2월, 바야흐로 대학교 2학년 개강을 앞두고 있었다. 웬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싫어하는 개강은 나에게도 조금 설렘으로 다가왔다. 개강일만 다가오면 습관처럼 항상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다. '열심히 해야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번 학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주문 같은 것이다. 실제로 동기부여를 받고자 이것저것 많은 검색을 하거나,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을 때가 많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익숙해진 학교생활에 지루함이 살짝 더해진 어느 날, 핸드폰 알림음으로부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루해진 일상 속 작은 빛을 선물 받은 기분이라랴. 그 알림음의 주인공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였다. 지원했던 대학생 서포터즈의 1차 서류합격 문자로 2차 영상면접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평소에 헌혈에 관심이 많았기에 주기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나이기에 '이번 활동은 내가 꼭!! 해야 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했다.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감을 가지고 2차 영상면접을 준비했다.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합격'이라는 문자를 받은 날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이다.

첫 창단식을 하기 위해 협회에 모였다. 낯선 공간 속 어색한 공기를 모두가 느꼈다.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보는 얼굴들 처음 하는 대외활동. 모든 게 처음인 나였지만 웬지 모르는 친숙함이 느껴졌다. 조혈

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노력을 위해 만난 우리 단원들의 마음 때문이었을까? 자기소개로 침묵이 깨졌다. 긴장감 속에 신선한 공기가 주위를 휩쓸고 지나간다. 우리들의 이름은 '온빛'으로 정했다. '온 세상에 빛을 주는, 따뜻함을 주는 서포터즈가 되자'라는 의미를 담았다.

창단식을 마치고 정신을 차려보니 해화역에 도착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캠페인이 진행된다. 또다시 떠오르는 주문. '열심히 해야지.' 주위 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잘 다가갈 수 있는 나는 선뜻 리플렛을 들고 거리로 나간다.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조금의 떨림과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용기를 내어 책자를 건네자 상대방은 나를 그냥 지나쳐버렸다.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시는 것일까? 순간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단원들과 눈이 마주치자 서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렇게 좌절만 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 받아주시기에 대하여 우리끼리 의논한 결과는 좋은 결론에 도달했다.

- 공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아주신다.
-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부피가 작은 리플렛 또는 포스트잇을 나눠 드리자.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활동을 깔끔하게 마쳤다. 오랜만에 긴장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서 있었던 탓인지 활동이 끝나고 몸이 피곤했다. 하지만 오늘 느꼈던 이 뿌듯함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되어주었다. '다음 활동은 더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는걸?'

나의 2학년 생활을 마치고 2023년, 새로운 3학년의 출발도 KMDP와 함께 하게 되었다. 작년 '온빛'으로의 활동을 하면서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주셔서 3학년 나의 생활도 감사함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올해의 팀 이름은 '라온'. '즐거운'이라는 순우리말로 이번 활동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같다. 작년에 한 번 해봐서인지 이번 활동에서는 어떤 동기들을 만날지 설렘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어느 날은 옛날에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았던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마로니에 공원에 깜짝 방문을 해주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엄마의 뒤에만 숨어있는 귀여운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나 조그마한 몸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겨낸 아이에게 고마웠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이식을 받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정말 아름답다. 나도 기증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한 지 2년이 훌쩍 넘었다. 2만분의 일의 확률로 나의 유전자형과 맞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아직도 놀랍다. 어떻게 확률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희박한 확률이지만, 현재 기증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의 수만 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캠페인을 같이 하는 동기 중에도 기증을 받은 사람과 기증을 한 사람이 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우와!!' 라는 감탄사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식 받은 언니는 지금 매우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덧 해단식과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있다. 단원들과 눈이 마주치면 웃음부터 짓던 우리들의 첫 만남을 생각하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 거 같아 아쉽다는 생각뿐이다. 우리들의 활동 목표인 '이것',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물해주고, 큰 용기와 뿌듯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 바로 조혈모세포 기증이다. 우리의 활동 목표이기에 우리의 '라온' 단원들도 한마음으로 이것에 동참하기 위해 기증희망등록을 하였다. 함께라서 '라온'답게 즐거울 따름이다. 2년 동안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준 KMDP...

헌혈할 용기에서 한걸음 더, 조혈모세포 기증! 함께 해요~!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

이식조정사업부 이미애 과장



안녕하세요. KMDP 이식조정사업부 과장 이미애입니다. 2010년 입사 이래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이식조정업무와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4년 3월, KMDP가 설립된 이래 29년차를 맞이한 올해 2023년 7월까지 약 429,000명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모집하였으며, KMDP를 통해 약 6,800명의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시, 동의율은 약 55% 정도입니다. 기증자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그런 걸 왜 해?" 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변의 만류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증까지 도움주시는 분들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부모님 반대로 인한 포기, 직장인의 경우에는 2박 3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해 회사측 협조가 불가능하여 기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증자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접촉조차도 못하고 종결된 경우도 10%에 달할 정도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중 환자와 유전자형(HLA,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하는 기증예정자에게 일치 사실

을 알리는 것입니다. 기증희망등록 당시의 오래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연락처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지만 기증희망자 본인이 휴대폰 번호, 주소 등 등록 당시와는 변경된 개인정보를 모집기관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고,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이식조정 업무를 통해 항상 느끼는 것은 '조혈모세포 기증'이 누구 한 명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증자님의 세심한 배려와 크나큰 용기, 그 용기를 든든히 지지해주는 가족과 학교 또는 회사 등의 상호 협력과 관심, 응원이 뒷받침되어야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 이식을 기다리는 모든 환자에게 이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부정적인 인식과 잘못된 사실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고,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 모두에게 국가 차원에서의 예우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2박3일의 입원기간 동안 국가에서는 공무원 기증자는 병가처리, 일반 근로자인 기증자는 유급휴가 처리 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사측에 지원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약칭: 장기이식법) 제32조 제2항 제3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그러나 이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학생 등 모든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기에 지원대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급휴가 지원 대상 및 범위가 추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모집기관 및 이식조정기관인 KMDP만이 할 수 있는 기증자 예우 개선을 통해 기증자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생명과 생명을 잇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MDP 이식조정 코디네이터는 한 해 7,000여 명이 넘는 기증자님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 있는 48개 채취의료기관(기증을 위해 입원하는 병원)에 기증자님과 동행하여 의료기관 관계자와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체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큰 힘이 되는 것은 기증자님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저희를 믿고 기증에 동참해주신 모든 기증자님께 참으로 고맙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및 교육, 홍보, 이식조정 코디네

이터, 기증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시는 자원봉사자, 개인 후원자 및 후원사, 그리고 의료기관 관계자 등 이렇게 나열해보니 새삼 많은 분들에게 도움 받으며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이들은 모두 안전한 기증 및 이식이라는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로서 이들의 마음이 기증자, 환자 모두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기증자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기증자님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만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내어 주실 때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올해 9월에 열린 <제6회 생명나눔주간 기념식>에서 <2023년 장기등 기증 유공자> 자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 표창은 기증자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KMDP의 모든 임직원, 유관기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시는 수많은 분들을 대표하여 받은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기증자님에게 신뢰를 드릴 것이며,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사업 및 기증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천하겠습니다.

기증자님의 희망과 새 생명나눔의 선물을 환자께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 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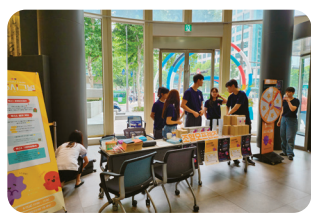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서약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KMDP 대학생 서포터즈 8기 '라운', 조혈모세포 기증자 동호회 <부울경 징검다리>, KB라이프생명사
회공헌재단 임직원 및 <조혈모 프렌즈 3기>, 한마음혈액원,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제주대학교, 폴리텍대학
교 제주캠퍼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KMDP 의대생 홍보위원단, 부산가톨릭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간호
학과 <빠담빠담>, RCY 대구지사(계명대), RCY 경북지사(대구한의대, 동양대) 등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주신 모
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개인 및 단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문의 : 기증증진팀 02-737-5533 (안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2023. 6. 1. ~ 9. 30.

2023.06.02.
KB라이프타워 (조혈모 프렌즈 3기)



2023.06.08.
경동대 메디컬캠퍼스 (한마음혈액원)



2023.06.13.
제주대 (한마음혈액원)



2023.06.14.
폴리텍대 제주캠퍼스 (한마음혈액원)



2023.06.15.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한마음혈액원)



2023.06.17.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 (KMDP)



2023.06.25.
마로니에 공원 (KMDP)



2023.07.30.
마로니에 공원 (KMDP)



2023.08.31.~09.02.
ICBMT 2023 (KMDP, 부울경 징검다리)



2023.09.11.~12.
부산가톨릭대



2023.09.13.
동양대 (RCY 경북지사)



2023.09.19.~20.
계명대 (RCY 대구지사)



2023.09.21.
대구한의대 (RCY 경북지사)



2023.09.23.
KMDP 의대생 홍보위원단



2023.09.24.
마로니에 공원 (KMDP)



2023.09.25.~26
한림성심대 (간호학과 '빠담빠담')





KMDP NEWS



KMDP는 더 많은 분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 6. 14. SM신용정보 임직원 히크만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

SM신용정보 임직원 여러분께서 혈액암 환자를 위한 히크만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가해주셨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모여진 히크만주머니 30개는 이를 필요로 하는 혈액암 환자께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2023. 6. 17.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기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증 교육 및 희망자에 한해 기증희망등록 접수, 이후 히크만주머니를 손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 6. 24. ~ 25. KMDP 서포터즈 '라온' 워크숍

KMDP 대회의실 및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한 숙소에서 '라온'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동안의 활동을 되짚어보고, 남은 기간동안 '라온'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기획·준비하며 활동 의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2023. 6. 29. NHN커머스 임직원 헌혈증 75매 기부

'6/14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이하여 NHN커머스 임직원 여러분께서 사랑의 헌혈증 75매를 기부해주셨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활동으로 '헌혈'을 택하셨고, 이번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도 헌혈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삼겠다는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2023. 8. 29. KBDCA 웨비나 <조혈모세포이식 기증자를 찾는 방법> 강연

KBDCA(한국혈액암협회)에서 운영하는 웨비나에 KMDP 이식조정사업부 나정화 부장이 <조혈모세포이식 기증자를 찾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식을 앞둔 환자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KBDCA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 8. 31. ~ 9. 2. ICBMT 2023

4년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ICBMT 2023(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회)에 KMDP도 참가하였습니다. 의료진 및 제약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현장에서 기증희망등록 캠페인도 동시 진행했습니다.



2023. 9. 2. 2023 하반기 부울경 징검다리 간담회

부산 남천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부울경 징검다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골수,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와 그 가족이 서로 모여 값진 경험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3. 9. 11. 생명나눔주간 기념식, 장관 표창

'제6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에 KMDP 이식조정팀 이미에 과장이 <2023년 장기등 기증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식조정 코디네이션은 물론 데이터 관리자로써 학술적 연구 가치 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하였습니다.



2023. 9. 20. (주)빗썸코리아 헌혈증 100매 기부

(주)빗썸코리아에서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사랑의 헌혈증 100매를 모아 기부해주셨습니다. 기부 누적 수 200매를 달성한 (주)빗썸코리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방면에서 선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직원 여러분의 사랑과 생명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지원하겠습니다.



2023. 9. 23. KMDP 의대생 홍보위원장 위촉

조혈모세포 기증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널리 알리는데에 큰 뜻을 품은 의대생 15명을 KMDP 의대생 홍보위원장 1기로 위촉하였습니다. 2024년 2월까지 각자의 소속 대학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 전합니다

KMDP 창립 30주년 기념책자 제작 착수



1994년 3월 11일, 조혈모세포 이식을 요하는 혈액 암 환자에게 원활하게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등록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골수은행협회(KMDP, Korea Marrow Donor Program)가 설립되었습니다.

1996년 7월에 탄생한 KMDP의 1호 기증자는 서한국 님입니다. 서한국 기증자님은 미국 공군 생도였던 성덕 바우만 님에게 기꺼이 자신의 골수를 기증하여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후 2000년 3월, 조혈모세포 이식 100례 달성, 2003년 9월 500례, 2006년 1월 1,000례, 2009년 6월 2,000례, 2012년 2월 3,000례, 2018년 5,000례를 달성하였으며 2023년 10월 현재, 6,800례 이상의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KMDP는 2004년 1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골수와 조혈모세포는 채집 방법 및 부위에 따라 결정되는 명칭으로서 당시, 말초혈에서의 조혈모세포 채집 방식이 주로 이루어지기 시작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골수 기증’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분께 ‘조혈모세포 기증’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대외 공식 명칭을 'KMDP'로 표기하여 업무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브랜드화 하여 대한민국 대표 기증 희망자 모집 및 이식조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KMDP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증자 여러분의 생명나눔의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KMDP 뿐 아니라 이식받기 위해 힘든 투병시간을 이겨낸 환자와 그 곁을 지킨 보호자 그리고 환자의 완치와 기증자의 건강한 기증을 위해 고생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기증자 예우 개선과 환자의 완치 기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시는 후원자 그리고 정부 부처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KMDP의 30년을 기념책자로 발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힘을 모아 제작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발간 예정으로 KMDP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 전합니다

“조혈모 워킹 온 라이프”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희망 걷기 대회



KMDP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혈액암 환자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준 기증자님께 감사를 전하고, 기증희망등록으로 생명나눔을 약속한 분들의 의사를 지키며 후원으로 물심양면 도움 주시는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매년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2회를 맞이한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은 <조혈모 워킹 온 라이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후원자 그리고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리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걸음수가 모여 2억 1천보가 되면 이를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를 위한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목표 걸음수가 2억 1천 걸음인 이유는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이식 받기 위해 서로 일치해야 하는 유전자형(HLA) 일치 확률이 2만분의 1인 점에 착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는 이전과는 다르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빅워크’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조혈모 워킹 온 라이프> 캠페인에 걸음 수를 기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11월 4일에

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걸음으로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조혈모세포 이식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를 위해 기증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많은 분들이 기증에 동참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기증 문화가 굳건히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조혈모 워킹 온 라이프>는 KMDP와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구.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및 한국교와기린주식회사, GC녹십자, (주)바이오세움, (주)랩지노믹스,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케어핏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소식 전합니다

KMDP 의대생 홍보위원단 1기 위촉

9월 23일 토요일, KMDP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KMDP 의대생 홍보위원단' 1기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단은 조혈모세포 기증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대생을 중심으로 선발했으며, 위촉식 현장에서 7명의 단원이 새롭게 기증희망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위원단의 활동 기간은 9월 23일부터 내년도 2월 17일까지이며, KMDP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각 단원이 속해 있는 전국 의과대학 내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요 활동

으로는 소속 학교에서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진행, 개인 SNS 채널 또는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물 제작 및 업로드 등이 있습니다. 활동 시간은 VMS 봉사시간으로 인정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소정의 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위원단 1기는 단장 문정훈(가톨릭관동대 의학과 4학년), 단원 김인혁(경희대 의학과 3학년), 김재원(동국대 의학과 2학년), 박서진(울산대 의학과 1학년), 박성원(고려대 의학과 3학년), 박세연(대구가톨릭대 의



학과 1학년), 박용희(고신대 의학과 1학년), 송지은(가톨릭관동대 의학과 4학년), 윤지용(가천대 의학과 4학년), 이현승(강원대 의학과 3학년), 임나은(이화여대 의학과 3학년), 장원준(차의과학대 의학과 3학년), 최재혁(아주대 의학과 3학년), 하예린(건국대 의학과 3학년), 허서진(울산대 의학과 1학년) 등 15명입니다.

문정훈 단장은 의대생으로서 의미 있는 정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조혈모세포 기증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각 단원이 생각하는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리고 싶은 이유와 사연을 통해 개발한 아이디어로 소속 학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치겠다고 활동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지 못한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 수는 5,919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꿈꾸는 의대생들이 주도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 캠페인은 조혈모세포 기증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지 많은 사람에게 그 진심이 닿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 전합니다

나의 3일이 당신을 일상으로

지난 4월 26일, KMDP는 서울특별시에서 공모한 <2023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일명 ‘희망광고’로 불리는 홍보매체 지원사업 시민이 공감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활동으로서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KMDP는 “조혈모세포 기증, 나의 3일이 당신을 일상으로”라는 메인 문구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기증자의 입원 기간은 2박 3일이지만 환자는 완치만을 바라보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입원합니다. 기증을 위한 3일의 시간이 환자는 병상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시간임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실제 기증자인 김형도 님(2022년 5월 기증)과 이식수혜자 김채이 님(2017년 8월 이식)을 모델로 광고를 제작하였습니다.

KMDP의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선정은 이번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KMDP의 ‘희망광고’ 모델은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 대사 ‘닥터프렌즈’였으며, 메인 문구는 “올해 나의 버킷리스트는 조혈모세포 기증입니다.”였습니다. 이를 보신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증희망등록을 위해

KMDP 사무국에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광고는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시내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전동차 4호선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매체	자치구	주소	면수
가판대	종로구	교남동 46(봉평웅심아메밀칼국수(종로)/육교)	1
가판대	강남구	역삼동 826-20(강남역 4번출구 앞)	1
가판대	광진구	군자동 361-28(정태련치과의원(3층))	1
가판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746(안경천국청량리점)	1
가판대	용산구	한강로2가 222-5(공사중, 공중전화부스 옆)	1
구두수선대	용산구	남영동 26-2(지오다노 앞)	3
구두수선대	강남구	논현1동 127-2 (올암빌딩 앞)	3
전동차	4호선	4호선 모서리(교통약자석 부근)	235



좋은 소식 전합니다

대한적십자사·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헌혈자는 헌혈로 생명나눔을, 그리고 헌혈기념품 대신 '헌혈기부권'을 선택하면 그 금액만큼 기부하는 물적나눔까지도 가능하며 그 금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의 집', 한마음혈액원은 '헌혈카페'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헌혈자의 나눔을 모으고 있는데요. 두 기관 모두 '헌혈기부권 제도'를 설치하여 모여진 기금이 의미 있는 곳에 투명하게 집행가능한 기관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KMDP는 2023년도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부권 사

업의 지원단체로 선정되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중 8천만원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하여 2차 혹은 그 이상 이식을 시행하는 환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환자에게 1인당 각각 200만원, 400만원의 치료비로 지원합니다.

2천만원은 '희망박스'로서 이 안에 투병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물품(향암비니, 바디크림, 가글세트, 치약, 칫솔)을 담아 이식을 앞둔 환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 강도 높은 항암치료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부작용

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부권 지원단체로서의 총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9월 30일 기준, 214명에게 '희망박스' 발송하였고 19명의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KMDP는 2022년 5월, 한마음혈액원 제6기 헌혈기부권 사업의 지원단체로 선정되어 9월 30일 기준 19,656,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조혈모세포 2차 이식환자 1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로 남은 기간동안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발굴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KMDP는 헌혈자의 사랑나눔 및 물적나눔의 의지를 이어 받아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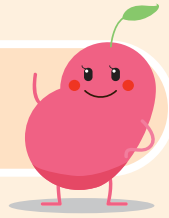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희망박스 지원사업은
헌혈자가 기부한 헌혈기부권 모금액으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지원합니다.




희망박스로 희망을 나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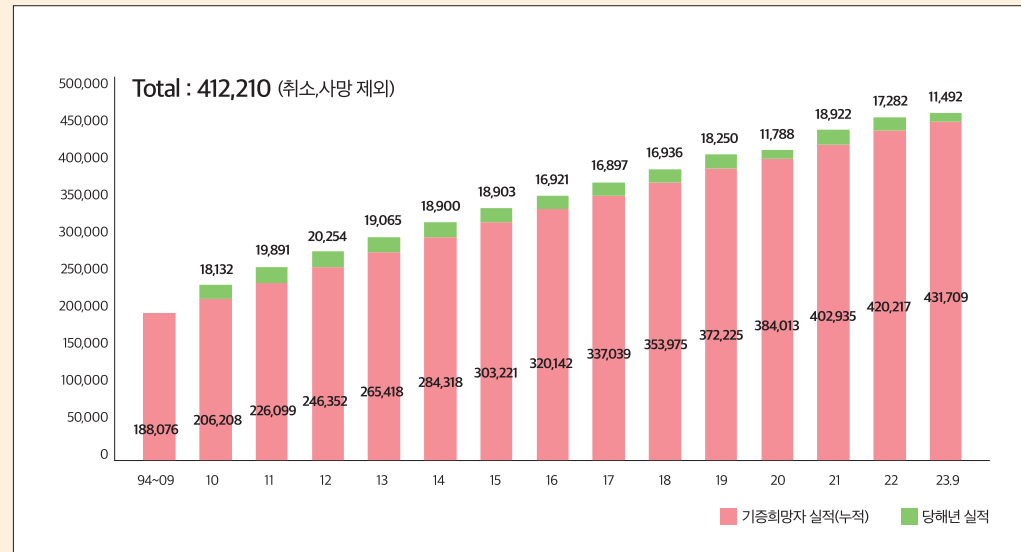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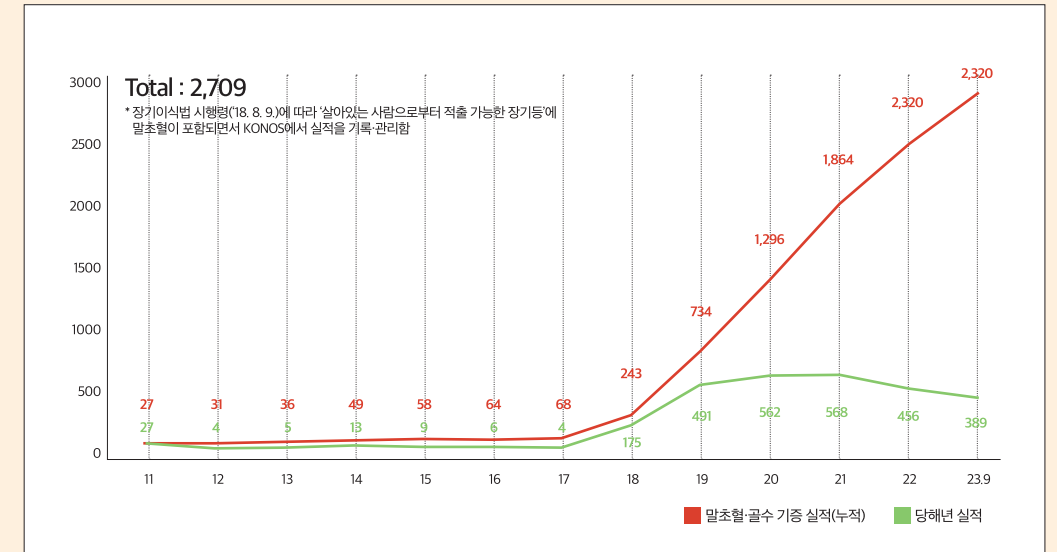
국내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 등록 실적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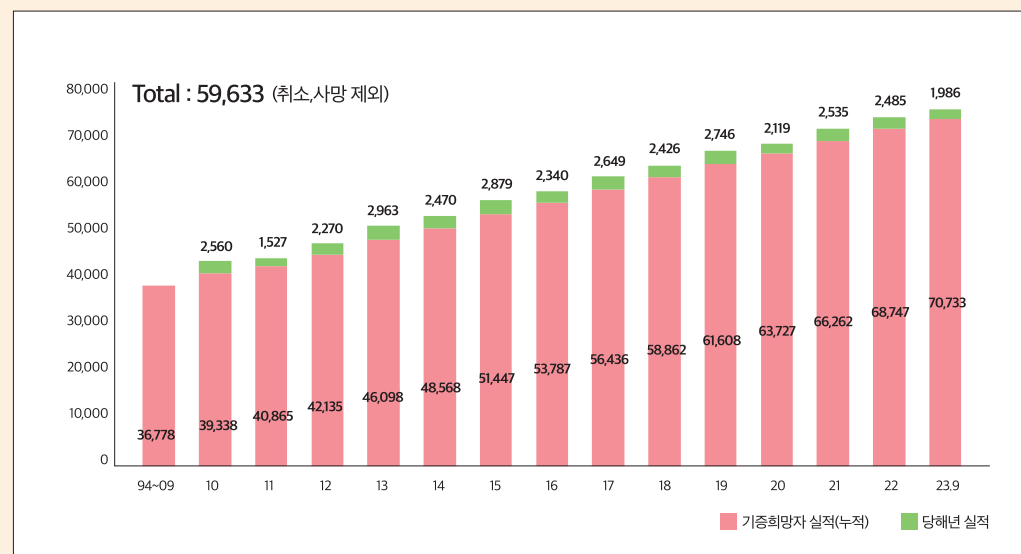
국내 비혈연간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실적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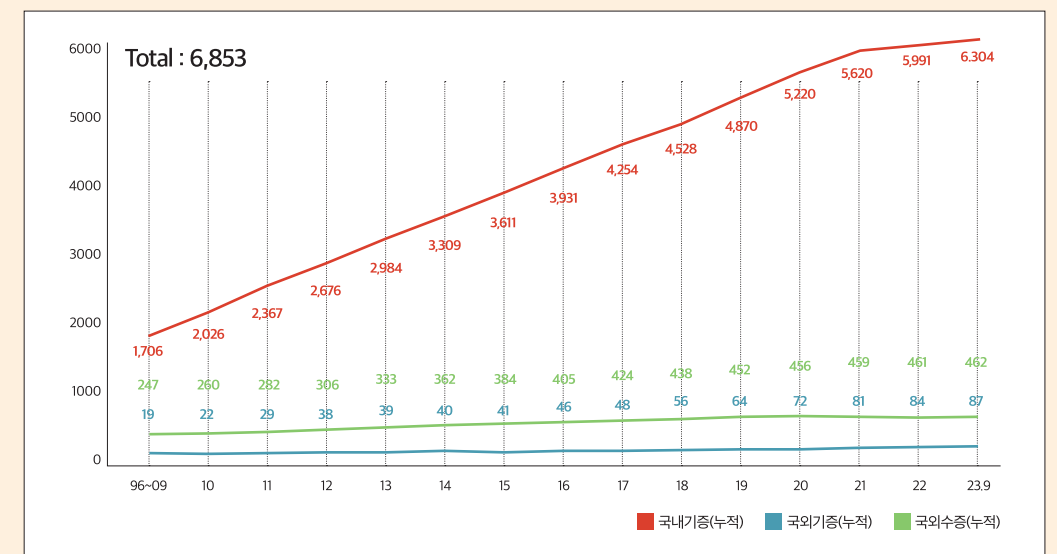
KMDP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 등록 실적

출처 : KMDP (단위: 명)



KMDP 국내·외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실적

출처 : KMDP (단위: 명)



김세환	김승택	문현석	배준수	이 연	이호철	조희성	최도범	1997	김지현	김영은	남민지	박정미	김진환	이희원	이재호	1998	김기환
김세환	김승연	김승준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미선	김세영	김승호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김원홍
문정숙	이희철	이병창	이상구	이상복	이상철	이은하	이종기	이철호	이현필	이희정	이희정	이희정	이희정	이희정	이희정	이희정	이희정
한이규	이영준	2000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노규동	류승준	서태호	송기남	송상진	송현철	유재리	유대만	이영민	이경서	이광재	이기봉	이미혜	이성현	이원석	이대준	전현석	전현석
김정훈	정종호	최영근	최준택	한수택	하승범	2001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은정	김영태	김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염현찬	원종철	유원복	유형일	윤근호	윤대만	이영선	이정화	이현필	이근	이근	이근	이근	이근	이근	이근	이근	이근
정국경	정남기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정국경
권세자	권영철	김관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남호
김형철	김종구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김종철
서영란	서영숙	서현숙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서태호
이건진	이영식	이규선	이기준	이은하	이상용	이상용	이상용	이상용	이상용	이상용	이상용	이상용	이상용	이상용	이상용	이상용	이상용
이혜정	임지연	임호경	장강권	장대준	전준정	정병주	정병주	정병주	정병주	정병주	정병주	정병주	정병주	정병주	정병주	정병주	정병주
최현진	한성진	한승규	하승철	2003	김병구	김승은	김승은	김승은	김승은	김승은	김승은	김승은	김승은	김승은	김승은	김승은	김승은
김달일	김수현	김영민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류기현	문종철	민한기	박광현	박근태	박근태	박근태	박근태	박근태	박근태	박근태	박근태	박근태	박근태	박근태	박근태	박근태	박근태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신승철
장정국	이내리	이도근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이동영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정종국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호
김기홍	김대수	김대준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안철식	여준구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이승수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김진선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김기홍	김대수	김대준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안철식	여준구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이승수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김진선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김기홍	김대수	김대준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안철식	여준구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이승수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김진선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김기홍	김대수	김대준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안철식	여준구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이승수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김진선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김기홍	김대수	김대준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안철식	여준구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이승수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김진선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김기홍	김대수	김대준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안철식	여준구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이승수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김진선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김기홍	김대수	김대준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안철식	여준구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이승수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김진선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김기홍	김대수	김대준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안철식	여준구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이승수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김진선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김기홍	김대수	김대준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안철식	여준구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이승수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김진선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김기홍	김대수	김대준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배명식
안철식	여준구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안철식
이승수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김진선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정기주
김기홍	김대수	김대준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덕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이재현	신정훈	양세진	윤태영	엄주현	연규호	정성기	오동수	오지석	오진남	오현식	우준배	원경운	유문수	유보라	유원철	유진성	윤희용	유현우
유희민	윤갑선	윤새진	윤서진	윤순진	윤채은	윤창은	이경민	이경진	이대형	이동근	이동훈	이민지	이민호	이병민	이필호	이성숙	이성순	이상순
이상은	이상준	이석준	이상규	이성국	이성민	이성일	이소방	이수경	이수길	이수빈	이슬기	이승우	이영철	이영표	이용식	이우영	이우영	이원민
이원재	이 윤	이은비	이영진	이영호	이재경	이재호	이재홍	이재훈	이정열	이정호	이정호	이종호	이주형	이준하	이지환	이지예	이지용	이지은
이치훈	이인성	이진영	이창민	이현아	이희경	이희로	임동훈	임복희	임우중	임정호	장근호	장기영	장명아	장영조	장병관	장봉찬	전수진	전준우
전효성	정다혜	정성곤	정성욱	정성웅	정영민	정은임	정영택	정영환	정종록	정준목	정지훈	정지현	정창한	정해왕	정현수	제갈훈총	조구진	조병우
조현상	조노혜	조영만	조성호	조장태	조정호	조정은	주정영	전태민	전혜란	차춘탁	최단비	최항기	최희정	최승걸	최재원	최처칠	최초경	최지우
최지원	최지원	최지혜	최창록	최광명	최현중	최해정	추신미	한성현	한성현	한은지	한재원	함진영	한태건	현보상	홍순모	홍연교	황경삼	황선수
황인호	황추호	황철현	2016	김경만	강대웅	김성구	강자진	강우경	강수식	강은영	강정우	강지호	강태호	강창혁	강호영	강희선	강주호	고민영
고영우	공상민	공성우	곽세미나	구나향	구도권	권나희	권도영	김가람	김경구	김광현	김광호	김권우	김규범	김기문	감남용	김디애	김당현	김대원
김도연	김동규	김명림	김명선	김명희	김묘령	김민주	김병선	김보민	김보원	김보원	김산재	김성옥	김성진	김세영	김세환	김수민	김수연	김숙희
김도기	김승문	김승민	김승민	김영기	김영범	김영진	김영범	김영옥	김영철	김영철	김영환	김예은	김예지	김우진	김원영	김우정	김원희	김원희
김진영	김종광	김일태	김재성	김재형	김우애	김종길	김지영	김지형	김진강	김진석	김찬혁	김태근	김태환	김병선	김창학	김현하	김현수	김현우
김현직	김형준	김 한	김희선	남정모	남기창	남우정	노지영	노진봉	노해진	등발현	루민정	맹호성	맹호성	문학각	민서영	민하람	박 건	박근우
박동진	박덕균	박민수	박민호	박설아	박용천	박원근	박윤교	박재성	박정련	박지문	박두만	박지영	박지영	박진형	박찬용	박찬현	박철식	박혜원
박 현	박현일	박현일	박현진	박혜수	박홍진	반성진	방승태	방호영	백경화	백경화	백종남	백승현	변진수	봉미정	서민지	서순희	서연수	손동현
손윤수	송민수	송성호	송지미	송현석	신경민	신상원	신승관	신원우	신정희	신창희	신창호	신창호	안근호	안드레	안병복	안성완	안세원	안재은
안현규	안혜원	양대훈	양나나	양광욱	오석민	오재성	오지훈	오찬양	오정훈	원빈호	원정호	위지호	유동민	유 란	유상우	유성미	유순현	유영우
유지후	유영준	윤보람	윤현태	윤혜련	윤혜진	윤상식	윤현태	이기원	이기하	이경노	이규재	이근하	이나준	이도원	이대경	이래영	이민우	이배근
이성용	이성영	이승현	이승현	이영한	이예은	이우성	이우석	이우라	이윤기	이윤재	이정희	이재환	이재환	이종민	이주하	이지숙	이지연	이창석
이하나	이현직	이호원	임성진	임선하	임완철	임재학	임준철	임재일	임홍룡	장갑수	장민욱	장민철	장윤복	장준호	장진영	장정진	전봉수	전상훈
전승곤	전영지	전은아	전지혜	전태민	전덕수	전동식	정명훈	정민수	정세진	정세훈	정수영	정수진	정연교	정연오	정윤진	정원석	정우경	정익수
정재현	정준하	정지원	정지우	정자연	정현준	정영연	정희영	조경오	조민호	조봉석	조성문	조희숙	조현석	조형선	주미진	주영준	주재영	주하윤
정성현	최광욱	최기원	최민수	최희섭	최서영	최지숙	최희선	최혜람	최은아	최정민	최정민	최종훈	최종훈	최종훈	한신호	한태영	한재원	허동원
권미정	홍민준	홍민준	홍민준	황진선	황지만	황진선	황내은	2017	강대성	강병창	강세원	강진호	고대영	고현수	고혜진	구분석	구본석	구원희
서지훈	권은정	김기회	김종태	김규민	김규미	김기두	김기성	김남은	김단비	김대성	김대형	김대환	김대형	김동근	김동규	김동성	김동현	김원희
김동현	김동호	김명철	김명호	김무연	김미애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김수빈	김수안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종필	김종후	김주경	김주현	김준길	김준이	김지홍	김지호	김진석	김진환	김진환	김진환	김진환	김진환	김진환	김진환	김진환	김진환	김진환
김형복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김효철
박노을	박영민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영준
박지수	박지원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승현	박연정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박선미
신영호	신원우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신동수
오지훈	오현석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옥도현
윤지수	이거영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거은
이소예	이수현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광록
이하성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이하진
정영호	정 예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정요섭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조민환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최현상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강성길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도성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원진
김현진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김현태
박민우	박민호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상식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송창훈	송호연	신명곤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신승호
오광선	오재교	오진산	오홍현	우현서	유계환	유도구	유민준	유성훈	유성훈	유성훈	유성훈	유성훈	유성훈	유성훈	유성훈	유성훈	유성훈	유성훈
이광선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승현	이시창	이신규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영준
이원생	이원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이원우
전정석	전정환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은호
전경성	전현동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조대호
최윤정	최윤현	최은철	최재석	최준관	최현욱	최정희	최현욱	최현욱	최현욱	최현욱	최현욱	최현욱	최현욱	최현욱	최현욱	최현욱	최현욱	최현욱
김나래	강동욱	강보성	강상현	강상호	강준우	강영환	강원준	강원준	강원준	강원준	강원준	강원준	강원준	강원준	강원준	강원준	강원준	강원준
권노은	권예지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미연	김미진	김 미	김민규	김민수	김민태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김민우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소원
김한현	김경성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경연
김현진	김재경	김호걸	김호철	김진석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민경태	민지현	박도원	박도세	박미진	박범규	박상영	박상현	박상현	박상현	박상현	박상현	박상현	박상현	박상현	박상현	박상현	박상현	박상현
박지훈	박효정	박학우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방현진
손소희	손성혜	손시철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손성현
윤영근	윤학욱	윤표호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학욱
윤용근	윤원식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윤준호
이수현	이슬기	이슬철	이슬하	이시원	이아람	이애숙	이영훈	이유재	이유형	이은옥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유형	이준호	이준희	이지우	이지원	이지현	이진주	이진하	이태란	이태란	이태란	이태란	이태란	이태란	이태란	이태란	이태란	이태란	이태란
이희진	임다비	임동현	임세나	임성호	임익성	임현재	임현택	장규정	장성일	장하은	전강현	전미선	전 현	전현식	전효정	정도연	정재훈	정문기
정세훈	정영선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정영우
조사석	조민호	조 훈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조주호
최용수	최유주	최유진	최현선	최현정	최창환	최현정	최현정	최현정	최현정	최현정	최현정	최현정	최현정	최현정	최현정	최현정	최현정	최현정
최희희	최진석	최환식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최용기
김유빈	김종수	강태호	강하늘	강한중	강원호	고경숙	고성길	고승태	고영배	고형석	고형석	고형석	고형석	고형석	고형석	고형석	고형석	고형석
김광연	김남호	김다영	김대경	김동욱	김동원	김무현	김문현	김민철	김민철	김민철	김민철	김민철	김민철	김민철	김민철	김민철	김민철	김민철
김세현	김세훈	김소연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소현
김우진	김원형	김우근	김원규	김원준	김은숙	김익현	김기진	김민석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지훈	김진석	김진수	김진원	김진준	김창성	김기원	김태근	김하늘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남이슬	남지훈	노상하	노수진	노의찬	민경민	박기원	박경태	박규태	박기원	박기원	박기원	박기원	박기원	박기원	박기원	박기원	박기원	박기원
박은우	박정문	박정환	박준만	박준만	박준만	박준만	박준만	박준만	박준만	박준만</								

장성민	이정우	이정현	이정훈	이준호	이진학	이태연	이재철	이현아	이현진	이현철	이희수
장영진	장영선	장영민	장영준	장영국	전인혜	전해룡	장기립	장재대	장영찬	장영준	장영주
장원천	장원희	정 하	정병의	조건우	조경영	조다만	조두기	조명식	조서연	조성호	조승환
최은하	채우남	최재일	최동현	최정현	최석표	최상진	최소문	최승도	최승현	최진규	최주욱
최희재	최치연	최미림	최혜나	최희정	최혜선	최창모	주혜민	탁지현	맹진성	하민수	하석근
최현광	현한광	홍기성	홍영기	홍고선	홍유자	홍지연	충청현	황다영	황인자	2021	강상원
고은구	고은영	곽복석	곽벽준	곽익원	구교진	구준모	구 윤	권도현	권희자	권운대	권사원
김대배	김대규	김대성	김근우	김동록	김영숙	김영옥	김민구	김민식	김민정	김민하	김범하
김성현	김세종	김소연	김진우	김진우	김영주	김영중	김예은	김요한	김윤하	김윤종	김유빈
김성태	김성진	김정은	김정현	김영철	김주현	김정후	김정우	김정현	김지선	김지현	김진희
김영현	김태우	노대근	김현철	김현수	김준현	김현지	김형갑	김형기	김형준	김효은	김휘연
남예나	남윤서	노대국	노건영	노혜은	노해진	두경택	류용태	문광훈	문병오	문수영	민경민
박보람	박현희	박비희	박민희	박낙남	박석봉	박석우	박석공	박성원	박성원	박세영	박수현
박지수	박지유	박칠백	박태현	박완수	박창득	박현호	박서진	배준진	배준호	배지현	배재향
설지나	설지현	성지성	성지현	손준성	손순석	손세진	손재복	송준성	송승호	송민정	송혜수
신동현	신소선	신현우	신혜선	신취희	신정현	안영수	안기원	안세원	안지현	양일현	양승현
오대현	육사라	유도환	왕민정	유미아	유성준	유영희	유원희	유재현	유지현	유진성	윤소우
이연진	이대영	이우찬	이소식	이영열	이상준	이민하	이병성	이병환	이보현	이상민	이상인
이수윤	이순우	이순호	이승현	이승철	이승호	이시현	이연주	이영민	이영성	이예란	이예령
이윤산	이윤경	이윤정	이영민	이재영	이재식	이재환	이정영	이정은	이정현	이종식	이종욱
이태원	이태원	이하윤	이한민	이현솔	이희선	이희환	이호준	이호영	이희준	임병남	임수익
장영두	장은비	장영호	장영희	전우주	전유미	전종민	전진타	전태훈	장기현	장영준	장영웅
장정현	장한민	장현우	장경희	장진민	조남화	조민정	조민준	조소혜	조새로	조영은	조혜찬
전기문	차규락	차상진	차현우	채준수	천정은	최광철	최대길	최동현	최민준	최영기	최충훈
전지훈	최친목	최희정	최희진	추갑수	추영은	탁득준	하 용	한정현	한인영	한희조	한희진
홍남주	홍성만	홍성민	홍성훈	홍수진	홍유선	황세준	황지영	황윤진	황진아	황철구	2022
강원선	강원철	강일선	강소현	고민철	고영주	고유리	고혁규	공수정	구본혁	구재형	김필범
김보현	김보진	김보희	김보현	김덕국	김영준	김종훈	김미경	김내제	김민지	김민진	김병근
김성환	김성호	김세희	김성희	김시중	김시원	김승현	김승준	김승준	김승현	김영국	김영준
김원하	김원하	김재국	김재현	김강민	김강찬	김정현	김정현	김광환	김종석	김준식	김준지
김태관	김태관	김태경	김태경	김태현	김현철	김현택	김현호	김영수	김영재	김효정	김효준
고건우	문병은	문태조	문윤준	문태민	문재윤	민정현	민다정	민하연	민지수	박기보	박종민
박요섭	박용국	박영훈	박정균	박정원	박주현	박준규	박준표	박지선	박지윤	박재하	박 태서
배두진	배지호	배현향	백성근	백성훈	백색선	백태준	변지은	변병선	서범준	서성원	서현선
손소현	송영주	송우정	송진원	송준호	신가률	신사회	신명승	신준현	심정수	심형성	안상민
염연호	오경진	오상진	오재현	우윤호	우영주	원대환	원정호	위두환	유도진	유정렬	유영현
윤세호	윤예은	윤성민	윤성빈	윤지우	윤창조	이가연	이기민	이다은	이대희	이대우	이영은
이성호	이성호	이소희	이수영	이수준	이만중	이창익	이태현	이윤현	이우식	이 용	이원기
이정호	이종원	이희영	이수현	이종현	이희준	이양지	이천미	이희진	이보람	이호수	임지현
임 용	임지현	임진호	전 철	임한구	정영진	장명재	장대성	장영훈	장승언	장서현	잠은지
전우영	전은진	전지호	전철영	전종현	전정진	정재경	정규성	정민철	정민철	정수현	정재호
정철수	정하찬	정 호	제환서	조서윤	조이라	조이라	조윤진	조은지	조재현	조현아	주성민
정희광	최희만	최석산	최식공	최우미	최원주	최혜서	최현국	최유무	최유철	최희철	최희민
전동수	하정민	한보람	한수현	한학자	한지민	한 현	한지현	함영택	함태희	함호진	홍다은
한영호	한영호	2023	강민수	강원환	강지수	강진구	강현창	고성민	고보영	고일여	고우영
권용승	권우미	권준비	권준현	김강희	김기성	김광일	김기보	김기범	김기중	김지홍	김내제
김미리	김미정	김민교	김민구	김민수	김민아	김민정	김민한	김민희	김민하	김보영	김보현
김소혜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소현	김영진	김영경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진현	김보민
김재경	김재현	김재훈	김경미	김정수	김정현	김종범	김종현	김주연	김지우	김지현	김진희
김하정	김하정	김하수	김하수	김한수	김유진	김현희	김해린	김효정	김효진	김효선	김효현
오보경	문성민	문지환	문준호	민지현	민유진	박관영	박성민	박성미	박성민	박성철	박세훈
박정현	박홍선	박홍성	박우용	박지민	박창식	박창욱	박재원	박재원	박복선	방용선	방일환
본 준	변 준	변준현	서미경	서지연	서호선	손준호	송영현	송재우	신동식	신대범	신태환
안지현	양민식	양세희	양영희	이수원	오승현	오수석	오상현	원상진	유병식	유지현	유태경
이동진	이동호	이영희	이미숙	이아연	이보현	이보성	이상진	이시름	이유리	이소영	이수민
이영기	이우진	이윤서	이윤주	이영선	이영하	이정민	이정주	이정현	이지민	이지희	이진식
임용준	임원우	임유선	장동원	장아영	장민호	장만재	장철승	장철승	전지재	전우광	전현우
정 영	정영우	정우진	정재우	정종범	정진원	정택수	정창성	정현아	정형철	정홍선	조병권
전진태	차병훈	차 형	차은성	전지현	전태영	최동영	최서정	최서정	최소수	최희철	최희자
최진태	최진호	최진호	최진호	최진호	최진호	최진호	최진호	최진호	최진호	최진호	최진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이후 우리협회를 통해 실제로 기증하여 주신 분들의 성함입니다. (1996~2023.09 현재까지)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

'징검다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후 '징검다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번 가입해 보세요.

새 생명의 기쁨 나눔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이야기의 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징검다리'는 기증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지역별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입 문의는 아래의 각 지역 총무 혹은 KMDP로 연락주세요.

- 서울·경기 총무 : 박철휘 010-2620-0079
- 부산·울산·경상 총무 : 이호영 010-8889-5723
- KMDP : 02-737-5533, 안내 1 (기증증진팀, 모집담당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안내

매 월(3월~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비 기증자를 위해 기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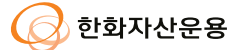
캠페인 진행 공지는 '징검다리' 네이버 밴드 및
KMDP 공식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대해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2. 11. 1. ~ ’23. 9. 30.)



기업 후원회원



(유)이엠에스미래

그린피앤티

엠앤에프코리아(주)

오피스퀵앤화물

조원교회 바울청년부

니혼사케

세무법인 송우

개인 후원회원

정기후원회원

강동우	강득록	강슬기	강영경	강용래	강원구	강인보	강종수	강진우	강태호	강행경
고영일	고영철	고유리	고윤석	고해정	고현종	공미아	공성진	공지현	곽동훈	권기정
권나현	권정도	권정미	김건중	김경민	김경선	김경심	김경혜	김규현	김규환	김기령
김나양	김대중	김도하	김도희	김동휘	김명길	김미란	김미소	김미지	김미현	김민지
김민호	김병국	김병주	김병한	김보섭	김보현	김봉규	김선아	김선정	김성중	김세엽
김세진	김세현	김수동	김순영	김신영	김영림	김영자	김영재	김영준	김예래	김유성
김은경	김은숙	김은실	김은아	김은진	김은혜	김은화	김은희	김인숙	김인환	김자영
김재근	김재남	김재영	김재형	김정수	김정현	김종명	김주성	김지연	김지현	김지환
김지훈	김진관	김진명	김진우	김진웅	김창범	김충만	김태현	김태희	김하린	김학기
김현택	김현엽	김혜민A	김혜민B	김혜정	김희	노규동	노영경	노현관	도훈파	류길환
문변영	문정숙(임한삼)	문준호	민병욱	민주영	박덕용	박민석	박민영	박보현	박봉태	박봉태
박상실	박상영	박상현	박석환	박세림	박세용	박소라	박수경	박승노	박승혁	박시원
박안나	박영재	박인걸	박인태	박정환	박준형	박진솔	박찬영	박찬호	박천우	박춘명
박태진	박형민	박해림	박해정	방극희	배원선	배인귀	백승진	사공희주	서동진	서태호
설화순	성영호	성진기	손명숙	손승완	손진화	송병덕	송지섭	송진솔	송척호	신기혁
신민경	신용호	신진경	안진혁	안토리	안호섭	양철호	어해숙	엄세호	오덕교	오상호
오수현	오지연	오현숙	우영택	원용식	원형식	유미나	유번림	유승수	유영철	유원영
유창한	유현철	육전수	윤서진	윤지용	이경숙	이경희	이규희	이금주	이기환	이나연
이동호	이미란	이민욱	이민호	이상민	이상현	이상환	이서현	이석영	이선아	이성수

이성호	이수경	이수현	이승현	이언옥	이영재	이영재B	이영호	이용섭	이유진	이은민
이은지	이은화	이의성	이재교	이재석	이재수	이재호	이정윤	이정호	이종무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진숙	이창석	이창휘	이혁중	이현세	이현아	이현주	이현지
이형희	이혜연	이호영	이화영	임다솔	임명희	임보나	임선목	임선영	임성빈	임재영
임한삼	임희승	장경호	장미현	장영석	장평걸	전도석	전성대	전원빈	정계숙	정구현
정기업	정기운	정남교	정다영	정달영	정성미	정성훈	정승섭	정승혁	정영권	정영례
정윤숙	정재호	정정선	정정숙	정진영	정진오	정혜나	정현주	조규섭	조동형	조빛나리
조성빈	조승휘	조옥주	조윤희	조은길	조정희	조한승	조항민	조홍채	진중광	차종주
차종철	차형덕	채은석	최관호	최도례	최미월	최상필	최승관	최연화	최연정	최용혁
최우석	최은진	최지영	최철식	최현준	추대환	하세린	하종률	하지혜	한보석	한성심
한성호	한소라	한송희	한순옥	한승철	한양수	한연숙	한원배	한윤탁	한일호	함경지
허관희	허란경	허미경	허지웅	현정희	현진	호인걸	홍가영	홍경석	홍유선	홍혜경
황대만	황용	황원철	황유성	황은선	황정환	황지원				

일시후원회원

ITOYUMIKO	강혜미	고정하	곽성훈	권수호	김동울	김동환	김명기	김미경	김민정	김수영
김수정	김순남	김우진	김주태	김준식	김태욱	김택수	김화원	김희웅	노연지	문형곤
박보현	서순현	서시연	성주현	손경화	손종서	송인구	신명준	신미란	심응훈	심창보
심희진	안영주	양 컨	오주연	유광운	윤상일	윤재성	이 강	이광선	이동훈	이미선
이상희	이소희	이송현	이수나	이승은	이연경	이재혁	이주형	이하승	임복희	임충성
장현호	전병윤	정윤숙	정일희	정재청	정학배	조선표	조정일	진중광	최영식	최자희
최현준	추세란									

혈액암 환자 응원 프로젝트

강시훈 김정현 김태은 노승빈 정미란 진보라 홍경아



KMDP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및
혈액암 환자 지원을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www.kmdp.or.kr > 후원 > 개인후원 신청 (정기 후원 혹은 일시 후원 선택 가능)
문의 02-737-5533, 안내 3

KMDP는 기획재정부 공시 제2023-34호에 의거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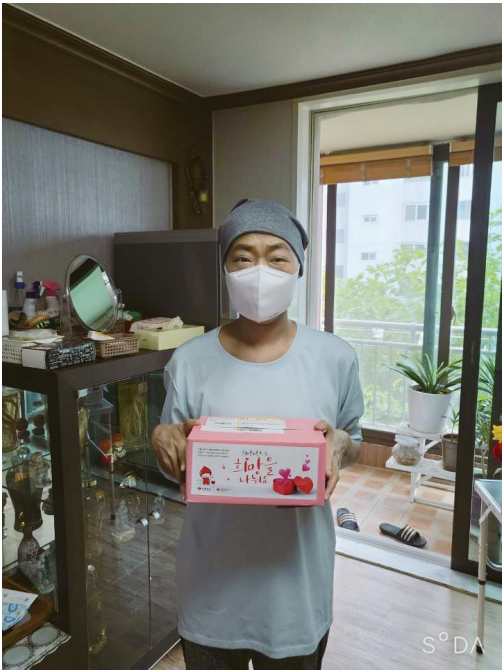
혈액암 환우 응원 프로젝트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으로 지난 3년간 아래와 같이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치료비 및 투병물품 지원

구분	2021	2022	2023. 9.	합계
치료비 지원	41명	40명	41명	122명
	84,796,000원	105,000,000원	80,480,000원	270,276,000원
투병물품	300명	300명	350명 예정	950명 예정

주요 후원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2018, 2021, 2022, 2023), 한마음혈액원(2016~현재),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2020~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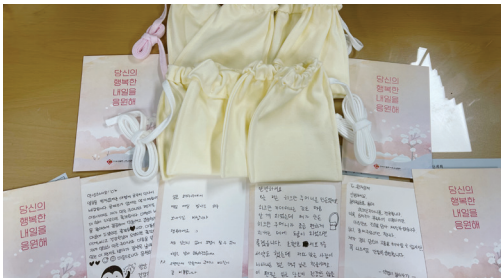


히크만 주머니 지원

구분	2021	2022	2023. 9	합계
후원 참여	691명	150명	42명	883명
환자 지원	332명	152명	53명	537명
	996개	456개	106개	1,558개

히크만 주머니는 환자 1인당 2개씩 제공되는 점과 사용하기에 적합한 주머니를 제공하고 있어 참여자 수와 지원자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후원사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2018~현재), 현대백화점그룹(2021), SM신용정보(2023)



헌혈증 기부 및 지원

구분	2021	2022	2023. 9	합계
헌혈증 기부	17건	11건	12건	40건
	774매	4,519매	520매	5,813매
헌혈증 지원	58건	44건	15건	117건
	47,350매	11,600매	1,180매	60,130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및 기증자 예우로 지원하는 헌혈증은 1인당 연간 최대 50매이며, 의료기관 사회사업실의 경우, 최대 500매를 지원합니다.

주요 기부처 조혈모세포 이식병동이 설치된 대형병원 사회사업실 및 환자지원단체 등



KMDP와 함께

혈액암 환우를 응원해 주세요!

조혈암 인형 만들기

KMDP의 캐릭터 조혈암, 적혈이, 백혈이, 소판이를
인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신 인형은 소아암 환자에게 무상으로 전달됩니다.



만들기 난이도 ★☆☆☆☆
참여 후원금 1세트당 3만원

히크만주머니 만들기

중심정맥관 외부를 연결해 주는 히크만 카테터를 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히크만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신 주머니는 혈액암 환자에게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만들기 난이도 ★★★★★
참여 후원금 1세트당 1만원

마스크 만들기

힘든 항암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신 마스크는 소아암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만들기 난이도 ★★★★★
참여 후원금 1세트당 1만원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KMDP
기증증진팀 02-737-5533, 안내 3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홈페이지
<http://kmdp.or.kr>



블로그
<http://blog.naver.com/kmdp0311>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mdp_official

신청자격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여

신청장소

KMDP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

접수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방문
점심시간 12~13시 제외, 공휴일 휴무
단체의 경우 출장 접수 가능

문의

02-737-5533, 안내 1 (기증증진팀)

KMDP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꼭 알려주세요!

기증희망등록 이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기증희망자님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단, KMDP 기증희망등록자만 가능)

☑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https://kmdp.or.kr> → 우측 킷 메뉴의 정보변경 → 변경내용 작성 → 확인

☎ 전화로 변경하기

02-737-5533, 안내 1 (기증증진팀)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기부해 주세요!

수혈로 인한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기부해주신 헌혈증은 지원요령에 따라 혈액 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 지원되며,
소정의 기부증서가 발급됩니다.



☎ 헌혈증 기부 및 지원 문의

02-737-5533, 안내 3 (기증증진팀)

📍 보내실 곳

(0433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 KMDP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앞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 하는 것을 모아모아! 알려드립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과 골수 기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조혈모세포 기증과 골수 기증은 동일하며, 골수를 조혈모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혈모세포(골수)를 채집하는 부위에 따라 용어가 달라집니다. 말초혈액에서 채집하면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 엉덩이뼈에서 채집하면 골수 기증, 제대혈에서 채집하면 제대혈 기증으로 부릅니다.

Q 조혈모세포를 보통 얼마나 기증하는지, 그리고 기증 후 회복에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일반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채집하는 혈액의 양은 약 250mL~300mL 정도로 환자와 기증자의 체중에 따라 기증 당일에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직후, 병실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큰 어려움 없이 컨디션이 회복됩니다. 또한 기증 다음 날 퇴원하며, 학업 또는 업무에 바로 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은 없습니다.

Q 양 팔을 이용해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하는 경우, 헌혈할 때처럼 쇠바늘을 이용하나요?

A 이는 채취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릅니다. 양 팔 모두 헌혈할 때와 같은 쇠바늘을 삽입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한쪽 팔은 쇠바늘을 삽입하고 다른 한쪽 팔은 실리콘 재질의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양 팔 모두 실리콘 재질의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양 팔이 아닌 중심정맥관을 통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은 양 팔의 혈관을 통해 채집합니다. 그러나 혈관이 약하여 채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득이하게 중심정맥관에 바늘을 삽입하여 조혈모세포를 채집합니다. 중심정맥관 삽입은 크게 경정맥, 쇄골하정맥, 대퇴부정맥 등 이 3가지 부위 중 한 곳을 통해 진행되며, 이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느 부위에 삽입을 하더라도 0.5mm~1cm 정도 절개하여 관을 삽입하며, 이때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소마취를 진행합니다. 양 팔의 말초혈관을 통해 채집하는 것에 비해 중심정맥관으로 채집을 진행할 때는 채집부위의 따끔거림과 이물감, 통증 등이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4~6시간의 채집시간 동안 양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자세 변화가 비교적 가능합니다.

Q 항우울제, 수면제 등 정신과약을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이 가능한가요?

A 단순한 수면장애로 복용하는 경우, 기증(희망등록)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세 문진을 통해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 발생 횟수, 증상, 약물 효과 등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치료 중인 병원의 전문의 소견을 종합하여 기증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서 기증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조혈모세포 기증 진행을 위한 기증자 건강검진 비용 및 입퇴원 등 모든 제반 비용은 수혜자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어 기증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Q 흡연 여부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A 흡연이 금기 사항은 아니지만 양질의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해 기증 일정이 가까워지면 금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일 경우, 흡연으로 인해 더욱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연하시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너는 사랑들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가득 싣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중한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싣고 오늘도 날아갑니다.